

강진 출신 독립유공자 추가 서훈 시급

郡 주최 제7회 강진역사문화 학술 심포지엄 성황
홍영기 교수 “포상 기준 완화...서훈 적극 추진해야”

강진 출신 독립유공 서훈자는 만세운동을 포함해 51명에 달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훈 추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강진아트홀 소극장에서 군 주최로 열린 '제7회 강진역사문화 학술심포지엄'에서 홍영기 순천대 교수는 '강진독립 유공자 선양방안'이란 논문을 소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강진 출신 독립유공자 서훈자는 총 51명으로 의병 투쟁이 5명, 3·1운동이 12명, 학생운동 12명, 국내 항일 18명, 일본 방면 2명, 광복군 2명으로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수치는 강진 사람들의 활발한 독립운동 참여에 비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로 서훈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적극적인 운동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강진 출신 3·1운동 관련 서훈자 대부분은 1919년 4월 4일 강진 장날의 만세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주형·김윤식·김제문·김현균·김후식·오승남·오응주·이기성·최덕주 등 9명이 현재 서훈자로 결정돼 있다.

그러나 4·4 만세운동과 관련해 26명이 재판을 받은 것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서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다. 박영욱·김인식·김현봉 등을 비

롯해 17명이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홍 교수는 “지금쯤은 포상 기준이 완화돼 미서훈자 대부분이 서훈을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며 “강진군은 미서훈자에 대한 서훈을 신속히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독립유공자들의 선양 방안에 대해 홍 교수는 “독립운동가의 유물을 수집, 정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편지와 일기, 문집류 등과 같은 전적류와 생전에 사용한 생활 유물 등을 발굴, 조사해 독립운동의 정신적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홍 교수는 “독립운동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강진군은 이 분들이 속히 서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는 위성식 군의장을 비롯해 문춘단 부의장 등 모든 군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차영수 도의원과 김용호 도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홍영기 교수의 논문 외에 김택진 광주교대 교수가 '강진근대학교 졸업생과 민족운동', 임선화 전남대 교수가 '강진 3·1운동의 전개와 그 의의', 주희춘 강진일보 대표가 '강진을 남포마을 박영욱 선생과 강진여성들의 독립운동'을 각각 발표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일제강점기 때 전남에서 가장 먼저 실시된 강진의 4·4 독립만세운동은 역사적으로도 상당의 의미가 있다”며 “강진의 독립운동 역사가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세미나에는 지역 주민들과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해 지역 역사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강진=정영록기자

명현관 해남군수 대한민국 농업대상 최우수단체장

전국 최초 농민수당 도입 등 농업·농촌 발전 기여 공로

명현관(사진) 해남군수가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농)농업인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9 대한민국 농업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농업대상은 농업과 농촌의 발전,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묵묵히 기여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인물을 발굴, 공로를 치하하고 우수한 사례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첫 제정됐다.



국가농정분야, 지방농정분야, 농촌진흥사업분야, 농업인분야, 농산업분야 등 5개 분야에 걸쳐 1차 서류심사, 2차 시상위원회의 심사가 이뤄졌으며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방농정분야에서 최고상인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해남군은 전국 최대의 농경지를 보유한 대표적인 농업군으로 명현관 군수는 민선 7기 농정분야 대표 공약으로 농민수당을 도입, 전국 최초로 올해 첫 지급했다.

농민수당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 표명으로 농업인의 위상을 높인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해남군은 농민수당을 지역 화폐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순환을 체계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까지 불려옴으

로써 성공적인 선례로 후속 지자체들의 성공 모델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100대 국정과제 선도 지자체로서 2030 해남푸드플랜의 추진과 우수한 농수특산물로 맛있는 먹거리를 선보인 제1회 해남미남축제 개최 등 짧은 기간동안 농업분야의 괄목한만한 성과를 나타내며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올 한해동안 해남군은 우리나라 농업·농촌 발전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많이 거뒀는데 대표 농민단체로부터 공로를 인정받게 돼 더욱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이끄는 선도 지자체로서 최선을 다해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농업대상 시상식은 오는 11일 수원 농민회관에서 농촌지도자 제72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해남=박필용기자

새우 양식사료 공동구매 효과 신안군·양식조합 10억원 절감

신안군은 4일 “관내 새우 양식 어업인들의 양식 경영비 절감을 위해 새우 양식 조합(암해읍 소재)과 협력해 양식사료 공동구매를 통한 10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신안지역 새우 양식장에 매년 소요되고 있는 양식 사료 비용은 110~120억원(6천500~6천800t)에 이른다.

양식어가들의 적극적인 공동구매 참여로 전년 대비 1포당(20kg 기준) 2천원에서 많게는 5천원까지 직·간접적으로 가격을 낮춰 700여에 달하는 전체 소요금액의 10%까지 절감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

신안군은 올해 처음 시도한 공동구매를 통해 어가별 양식 경영비 절감은 물론 새우 양식 어업인들의 단합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 /신안=양훈기자



나주 남평읍, 사랑의 떡 나누기 ‘훈훈’ 나주시 남평읍(읍장 변동진)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최근 열흘간 관내 44개소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 인부를 비롯해 난방실내 및 시설물관리 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가을걷이 이후 경로당 차매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어르신들을 위해 관내 5개 사회단체에서 십시일반 마련한 사랑의가래떡을 전달했다. /나주시 제공

영광군, 어패류 자원 조성 칠산바다 살린다

백합·동죽·참꼬막 등 12개 어장 적지조사 복원사업 추진

영광군이 백합과 동죽, 참꼬막 등 패류자원 복원사업을 펼치는 등 칠산바다를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광군은 4일 “연안갯벌 어촌계 12개 어장에 대한 패류자원 적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수온으로 인한 패류 서

식지형 변화에 대응해 어장별 저질, 수온 등 해양특성 분석을 통해 적합한 품종을 선정 및 집중 육성으로 어업소득을 늘리기 위해 추진된다.

영광군의 갯벌은 전남갯벌의 13.9%에 해당하는 145.5㎢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남해안의 품종이 북상해 자생할 정도로 번식한

경과 서식지가 변동해 패류 생산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환경 변화를 극복하고 어장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3일 열린 패류자원 적지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패류 전문가들은 1960년대 영광에는 전남도 백합 위판장이 설치될 정도로 생산력이 좋은 갯벌이었으나 소하천 방조제의 영

향으로 현재 백합생산량이 감소해 자원량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절실하며 패류 중간 육성장 개발 등을 통해 패류산업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패류자원 적지조사를 통해 지역 어촌계에 적합한 패류 품종을 찾아 방류 사업 등과 연계해 내실 있는 패류자원 복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광=김동규기자

목포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민자 추진

2021년까지 600대 주차장·편의시설·주유정비등 조성

목포시가 대양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시설을 민간자본 유치로 건설한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9만1천510㎡ 부지에 600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운전자를 위한 휴게소, 식당, 수면실, 샤워실 같은 편의시설을 비롯해 관리동, 주유정비동 등을 갖추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7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은 뒤 사업자 선정, 실시 설계 및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2021년까지 공영차고지를 완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설 조성에 필요한 추정 사업비 122억원을 전액 민간사업자가 조달하게 되면 목포시는 시비 부담 없이 지역에 꼭 필요한 공영차고지를 확보하게 된다.

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 목포신항, 무안국제공항, 서해안고속철도, 서해안과 남해안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통팔달 물류거점으로서 목포의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그동안 고질적인 민원으로 제기돼왔던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도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한편, 지역인재 채용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민간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며 세부 공모지침과 제출서류 등은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교통행정과(061-270-8293)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정해선기자

안마의자 헬스기구 런닝머신

당신의 건강한 Action

꿈을 향해 내딛는 첫 발걸음,
가슴 벅찬 도전과 멈추지 않는 땀방울,
당신의 건강한 Action을 위해
실버랜드가 당신의 열정을 지켜가겠습니다.

태하런닝머신·다이나포스 – 웨이트기구 광주전남지사 헬스 & 실버랜드

목포 / 순천 / 여수 대리점 모집

대한민국 헬스기구 대표 브랜드

헬스클럽 런닝머신(태하) 보상판매

Goldone 504 상업용	Goldone 502 상업용	GOLDONE - 501 상업용	AF-GOLDONE 17.1 상업용
AF-GOLDONE 303 상업용	AF-GOLDONE 301 상업용	ROBUS-TV10.4 상업용	ROBUS-04 상업용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지번 : 백운동 644-33) ☎ 062)653-4141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83(주월동) ☎ 062)651-9944~3

S.L.T.
Silver Land Treadmill
www.slhealth.co.kr